

이제는 문화시민

선진예술교육현장 탐방

〈4〉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덕수궁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를까. 아마도 열에 아홉은 은행일이 늦기를 노랗게 물들어 가는 돌담길을 연상할지 모르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 자리한 덕수궁 돌담길은 계절과 상관없이 늘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이를 시샘하듯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거닐면 헤어진다든 속설도 있지만, 덕수궁이 자리한 서울 중구 정동 일대는 근대역사가 태동된 시발지이다. 1897년 조선왕조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위해 건설된 덕수궁은 근대 격변기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 나라와 백성

이 모두 태평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붙여진 덕수궁의 정문 대한문(옛 명칭 대안문)을 비롯해 중화전, 석어당, 준명당, 즉조당, 함녕전, 덕홍전, 석조전 등의 전각이 들어서 있다. 또한 근대 덕수궁 주변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인근에 서울 시립미술관, 구 러시아 공사관, 정동극장,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주한 외국 대사관 등이 밀집돼 거대한 문화벨트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지난 1998년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덕수궁 역사 버무리니 근대 미술 잘 보이네



1910년 건립된 덕수궁 석조전 서관에 문을 연 국립 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와 미술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도심속 미술관'이다.

지난달 20일, 덕수궁 정문 앞은 마침 수문장 교대식(오전 11시·오후 2시·오후 3시30분)이 열리고 있었다. 조선시대 궁궐의 문을 개폐(開閉)하고 경비와 순찰 업무를 담당하던 수문장의 교대 의식을 재현하는 것으로 덕수궁의 대표적이지 않겠다. 수확여행을 온 듯한 여학생들과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수문장 교대식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덕수궁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00여 년 전으로 되돌아 간 듯했다. 궁 밖의 시끌벅적한 세상과 달리 오래된 건축물과 아름다운 꽃들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궁 안 곳곳에 자리한 아담한 벤치에는 도시락을 꺼내 먹거나 책을 읽으며 한낮의 오후를 즐기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정문에서 5분 정도 안쪽으로 걸다 보니 '국립 현대미술관 덕수궁 미술관'(이하 덕수궁 미술관)이라는 표시가 붙은 웅장한 건물이 나왔다. 덕수궁 안의 전통적인 건축물들과 달리 화강암 재질의 이오니아식 건축양식은 지은 석조전이다. 덕수궁 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석조건물인 석조전 서관에 개관한 이래 우리나라 근대기인 1900~1960년대까지의 미술과 아시아, 세계의 근대미술을 아우르고 있다.

아쉽게도 이날 미술관 정문은 고 이종섭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이종섭, 백 년의 신화'(6월3일~10월3일) 준비로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미술관 건물을 끼고 왼쪽으로 돌아서자 '근현대 미술사 아카데미'(5월20일~7월22일·오후 2시)라고 적힌 안내문이 방문객을 맞았다. 덕수궁 미술관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진행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개강식을 겸한 첫 번째 강좌는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덕수궁, 근대한국을 그리다'였다. 덕수궁이 건설되던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통해 근현대 미술과 근대 역사의 발자취를 조명해 보는 자리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60여 명의 수강생들은 강의에 몰입한 해박한 설명에 푹 빠진 것 같았다.

전 씨는 "정일전쟁과 아관파천을 거치면서 대한제국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자 당시 고종황제는 독립국이자 문명국의 증거를 과시하기 위해 근대문명의 표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덕수궁의 전신인 경운궁 중화전 건립이었다"면서 "하지만 당시 경운궁은 전통 궁궐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편전, 중전, 동궁 등이 없어 황궁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종 황제가 상상했던 궁궐의 표상은 옛 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기본으로 옛 것을 참조하는 '신본구참(新本舊參)'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운궁의 협소한 권역을 보완하기 위해 인근에 도로를 내 경희궁을 경운궁에 결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종의 의도를 눈치챈 일제에 의해 경희궁과 경운궁을 하나로 묶으려고 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강제양위된 고종은 경운궁을 순종에게 물려 주고 퇴위한 뒤 경희궁에 자신의 호인 '덕수(德壽)'를 붙여놓고 했지만 일제가 도로

덕수궁 내 미술관 '근현대 미술사 아카데미'

'고종시대 기억' '폴 세잔부터 앤디 워홀' 등

1900~1960년대 미술·세계 예술 아올러

'아트&런치' '낭만 수요일' 계층별 강좌도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었다. 이후 일제는 순종의 거처를 창덕궁으로 옮기고 경운궁을 덕수궁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고종황제의 황도건설사업은 결국 미완성으로 끝나게 됐다.

올해로 87번째를 맞는 근현대 미술사 아카데미는 '근대 한국의 출발점, 정동과 덕수궁', '이왕가(李王家) 컬렉션', '새로운 매체 환경과 근대미술', '덕수궁관, 미술전시를 열다', '변화의 바람과 여성작가', '고종시대의 기억, 그 미학적 회상' 등이 7월 22일까지 이어진다.

근현대 미술사 아카데미는 덕수궁 미술관의 문화적 정체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덕수궁, 근대한국을 그리다'를 기획한 것도 미술관의 장소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덕수궁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술관의 소장품과 전시회, 교육 프로그램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미술관의 기획의도는 지난 2012년 첫선을 보인 아카데미의 발자취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봄·가을 학기로 나눠 진행되는 아카데미는 그동안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나혜석에서부터 이우환까지), '서양 근·현대 미술의 흐름'(폴 세잔에서부터 앤디 워홀까지), '미술, 문화와 만나다', '근대 아시아 미술과 만나다'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왔다.

이와 함께 '아트 & 런치', '낭만 수요일', '힐링 목요일', '쌍성 토요일', '학교연계교육'도 덕수궁 미술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다. '아트 & 런치'는 도심에 자리한 미술관의 입지적인 조건을 살린 낮시간대 직장인 대상 작품 감상 프로그램이고, '낭만 수요일'(오전 10시30분)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힐링 목요일'(오전 10시30분)은 가사일로 지친 주부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선사하며 '쌍성 토요일'과 '학교연계교육'은 초·중·고등학생과 중·고등학교 단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시와 연계시킨 감상교육이다.

국립 현대미술관 조민경(홍보 담당)씨는 "덕수궁 미술관은 고 백남준, 박수근 화백 등의 근현대 미술 소장품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미적 안목을 높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특히 1년에 세 차례 열리는 기획전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글·사진=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덕수궁 미술관

국내 첫 근대식 덕수궁 석조전에 개관 회화·조각·공예...근·현대 미술 寶庫

덕수궁 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석조건물인 덕수궁 석조전 서관 2~3층을 보습해 지난 1998년 국립 현대미술관의 분관으로 개관했다. 1898년 영국인 하딩(J.R. Harding)이 설계한 석조전은 1900년 착공돼 1910년 완공된 것으로 서관은 1938년 '이왕가(李王家)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 지은 건물이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도심외곽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이왕가 미술관을 리모델링했다. 미술관에는 6~8개의 전시실(400평)과 수장고,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국립 현대미술관은 지난 1986년이 근·현대 미술 연구 및 보존 등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과천관과 지난 2013년 21세기 현대미술의 허브를 모토로 경북공인근의 옛 기무사 건물을 리모델링한 서울관, 그리고 근·현대 미술의 보고(寶庫)인 덕수궁관 등 '한지붕 세 가족' 형태다.

덕수궁 미술관은 1900년 전후에서 1960년까지의 회화, 조각, 공예 작품이 주로 전시된다. 1년에 세 차례 열리는 전시회는 미술관의 소장품과 역사를 배경으로 다른 미술관에서는 시도하기 힘든 기획력을 보여준다.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로 냉전이 데올로기에 의해 조명받지 못했던 고암 이응노(1904~1989)의 탄생 100주년 기념전 '다시 고암을 생각한다'(2004년), '명화를 만나다-한국 근현대 회화 100선'(2014년), 광복 70주년 기념 '이래대전', '백 년의 신화-한국 근대미술 거장전 시리즈-변월용'(2016년) 등이 화제를 모았다.

/서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덕수궁 중화전 전경.



위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쌍성 토요일', 주부들을 위한 '힐링 목요일', 어르신들의 미술감상교실인 '낭만 수요일'.

(덕수궁 미술관 제공)